

# 한국인의 친미(반미) 감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정훈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정승철 | 제주평화연구원\*\*

## | 국문요약 |

한국사회 내에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친미세력과 비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반미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바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반미성향을 지닌 개인들 가운데 어느 집단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편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론조사 데이터와 통계분석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개인은 친미성향을 지니고 진보적인 개인은 반미성향을 보인다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국인, 친미감정, 민주주의, 여론조사, 경험적 분석

\* 제1저자

\*\* 교신저자

“우리는 더욱 더 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 결합시켜야 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발표하고 소통하면서, 정치의 공간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 모두가 반미 행동의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자”(참세상, 2002/12/12)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중략)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파존 TV, 2019/08/03)

“정부는 지나친 반미시위를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정부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구한다”(태영호 당시 전 주영(駐英) 북한공사, 배재성 2018에서 재인용)

## I.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선거와 정당정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이지문 2017). 이러한 “광장정치”는 2002년 여중생 효순이·미선이 사망사건,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최근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관통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급기야 2016년 말부터 매주 벌어진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이른바 “반핵반김” 집회들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집회”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장정치는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된 정치 동원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광장정치의 전개 과정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그리고 기존 문헌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주도한 세력의 이념성향에 따라 미국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미국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세력 모두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 근대국가 형성과정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1980년대를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1980년 5월 일어난 광주항쟁에 사실상 무관심했던 미국의 태도에 대해 당시 대학생들이 가졌던 실망감은 이후 반미감정 형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이강로 2004, 250). 이후 반미세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한국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집단들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에 대한 호의와 지지를 계승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북유화정책이 가시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정치화되었다(엄한진 2004; 이수인 2004). 주목할 점은 2020년대 초반 현재까지도 맨 앞에 소개된 상반된 입장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친미와 반미성향을 보여주는 세력 모두 최소한 광장정치의 단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친미(반미) 감정과<sup>1)</sup>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와는 어떤 상

1) 본 연구에서는 반미주의와 반미감정을 구분하고 반미감정을 측정하도록 하겠다. 오창현 (2015, 193)에 따르면 반미주의는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이념적 적대감”을 가르치고 반미감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반미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인’ 비판”을 지칭한다. 즉, 반미감정은 “미국과 미국의 정책이나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관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 친미성향을 지닌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적 가치 및 정치체제에 더욱 호의적인가 혹은 그 반대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한국인의 친미 혹은 반미성향을 규범적 판단에 치우쳐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종북)=반체제 등과 같이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했던 기존연구들과 언론보도들은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한국정치의 균열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이내영 2011), 그리고 여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공고화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장우영 2016), 친미 혹은 반미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학문적 작업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형(linear)과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높은 친미성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지지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가질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근간에는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 그리고 군부가 이끄는 정치체제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사회와 학계에서 지금까지 친미(혹은 반미) 감정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 분석 없이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다면적(multifaceted)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다만 한편으로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

---

것”으로 간주한다.

의 퇴행(backsliding) 혹은 탈공고화(deconsolidation)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 현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더욱 강력한 반민주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는 한국의 친미(반미)성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제III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가설들을 소개하며, 제IV장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의 성격과 부합하는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의의를 한국인의 친미(반미)성향뿐만 아니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소개한다.

## II. 한국 사회 내 친미/반미감정 발전의 배경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타국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막대한 경제·문화적 지원을 통해, 때로는 무력개입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은 단순히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했다.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호감(혹은 반감)은 한 국가의 정치적 경로를 설정하거나 변화하는데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1973년 친미장교들이 벌인 칠레의 쿠데타와 1979년 반미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이 주도한 이란혁명은 수많은 사례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Gustafson 2007; Baxter and Akbarzadeh 2008). 한국의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의 종식과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절

대적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호감이 정치적 견해와 계층별 차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었다는 점이다(Shorrock 1986, 1198-1199). 이러한 친미성향의 확산에는 물론 국시로 자리매김한 반공주의의 영향력도 컸지만(전상숙 2011, 159-161), 당시 모든 면에서 선진적이었던 미국에 대한 대중들의 동경도 큰 역할을 했다(전상인 2003, 200-203).

19세기 말부터 장기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시각을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에 천착한 연구도 있으나(커밍스 2003), 학자들은 대체로 1980년의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한국군을 방조했던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오늘날의 반미정서를 촉발한 직접적인 기원으로 본다(Shin 1996; 전상인 2003; 이강로 2004; 김용철·최종건 200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임했던, 그리고 당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의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적인 인식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특히 자주적 민주화와 통일의 직접적 걸림돌을 미국으로 상정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출되었는데,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끊임없이 벌어진 미국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거와 방화는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른바 ‘운동권세력’으로 조직화 된 이들 대학생은 진보적 종교인들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와 반정부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Jung 2010, 952-953). 즉, 한국의 반미주의는 최소한 1980년대 말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회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은 미국에 대한 감정과 민주주의의 선호에 대한 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는 반미감정의 대중화이다. 1980년대 확산하기 시작했던

반미감정은 1990년대 들어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였더라면 한국은 결코 민주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하였기 때문이다(Jung 2010, 953).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민주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 내에는 반미감정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민주화를 시작한 한국사회는 그동안 군부정권 시기 동안 억눌려있던 다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반미감정 또한 이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화는 곧 시민들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권위주의 정권에서 억압받던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Oh and Arrington 2007, 334). 게다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1993-1998)는 시민사회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Oh and Arrington 2007, 341-342). 이어서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들어서자 (한국의 민주화 이전까지는 비주류에 속하고 있던) 반미성향을 지닌 정치인, 시민단체, 개인들의 발언권은 한국 사회 내에서 더욱 강해졌다.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1988년 하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한국인들의 자긍심은 상승하였으며 이제는 대외관계에서 한국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전상인 2003, 207). 이에 한국사회 내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보다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Lee 2007, 479).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화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개방 압력과 한·미 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 개정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은 반미감정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hin 1996; Oh and Arrington 2007).

나아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 간의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한국인들은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이는 곧 패권국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등장할 수 있는 여유를 한국사회가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Lee 2007; Jung 2010). 특히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2001-2008)의 일방주의적인 행보와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미관계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촛불시위는 반미감정이 기존의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어 일반대중,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Jung 2010, 953; 이강로 2004, 255-6). 이와 관련해 김용철과 최종건의 공동연구(2005)는 나이가 적을수록 반미행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저항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분석한 조기숙(2009) 역시 집회참여와 이념적 정향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겪으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시대별, 사건별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표 1>은 2010년대 한국인들이 미국을 얼마나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 나오듯이 2013년부터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과 2018년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2020년 들어 6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sup>2)</sup>

---

2) 2020년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이전 연도들보다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2020년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질문들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한국인의 93%가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함을 보였다는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비우호적인 인식 (%)

연도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 없음
2013	8.65	70.58	16.56	2.22	1.73	0.25
2014	8.52	73.74	15.16	1.88	0.69	-
2015	8.86	75.42	12.54	1.39	1.39	0.40
2017	7.13	67.62	21.98	1.29	1.19	0.79
2018	9.83	70.51	15.79	2.38	1.09	0.40
2019	11.53	64.71	19.09	2.58	1.99	0.10
2020	6.63	53.15	30.06	8.40	1.51	0.25

출처: 퓨리서치센터 2013-2020 여론조사 데이터 (2016년은 한국에서 여론조사 시행 안함)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보수’ 혹은 ‘애국’세력의 일상적 동원과 이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친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의 등장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특히 정권의 대북포용정책과 언론개혁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이수인 2004, 280-282). 그들의 반감은 곧 전직 직업군인과 일부 원로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정부 대중 집회의 형식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한미동맹 수호와 미국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인 ‘친북좌익’세력의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엄한진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4년 9월 9일 전직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언론인, 그리고 교육계, 법조계, 의약계, 종교계 등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서명하였다(월간조선 2004/10). 이 선언문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을 맹방이라 지칭하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09/09).

이후 친미감정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그들의 집회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계기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이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개최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연구한 김왕배(2017)는 탄핵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중북좌파’ 세력이 세운 계획의 결과라는 인식을 집회참가자들 서로가 공유하며 이를 일종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친미와 반미감정의 대칭적 구도의 성장은 최근 한국 정치의 가장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이념적 양극화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이내영·정환을 2005; 조성환 2016). 흥미로운 점은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의 친미와 반미세력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핵심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전상숙 2011, 161). 이는 박근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촛불집회에서 사드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반미세력의 상징적인 주장들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적폐청산’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과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태극기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현재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연합뉴스 2017/10/28; 최용략 2019).

그러나 김용철(2016)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과 공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미약하다. 최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더딘 민주주의의 발전이 특정 해외국가(혹은 집단)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표출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행사하는 정치세력(예를 들어, 극우 포퓰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의 부상, 그리고 이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Enyedi 2016; Mietzner 2018), 한국인의 친미 혹은 반미감정의 기저에도 겉보기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가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방법론적으로 관련 연구들은 친미와 반미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시간에 따른 의미의 유동성과 개념의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한국의 반미주의 혹은 반미감정은 특정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예: 수출 규제, 사드 배치), 미국의 국내제도(예: 총기 소지), 미국적 가치(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특정 지도자(예: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때로는 한꺼번에 표출되기도 했다(이현송 2015). 마찬가지로 친미주의 혹은 친미감정 역시 6.25 전쟁과 냉전종식,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적 위상 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별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남궁곤 2000). 더욱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미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친미와 반미성향이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김용철·최종건 2005).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가 보다 정밀한 개념화 작업 대신 단순히 미국에 대한 추상적 호오(好惡) 혹은 특정 행동(예를 들어, 반미집회)에 대한 참여의사표시로 친미와 반미주의 혹은 감정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더욱 정밀한 개념화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친미와 반미성향과 이에 따른 민주주의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와 이를 통해 검증할 가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III. 데이터 및 변수의 조작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물음은 “친미, 혹은 반미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한국의 정치체제로 더욱 강하게 선호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친미 혹은 반미성향 중에 어느 쪽이 더욱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설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퓨리서치센터 2017년 봄 세계여론조사(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7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sup>3)</sup>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자료에는 1,01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및 이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조작화(operationalize)하기 위해서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은 다음 질문들을 이용할 것이다.

- 1) 시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고 무엇이 법으로 정해질지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직접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a)
- 2)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무엇이 법으로 정해질지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간접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b)
- 3) 국회와 법원으로부터의 개입 없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c)
- 4)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

3) 본 연구에 2017년 여론조사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본 자료가 미국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설문지에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 2016년 여론조사의 경우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2018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없었다. 2019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은 있었으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만한 질문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견고함(robust)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걸쳐 동일한 경험적 증거가 나타남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여론조사 자료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은 본 연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2017년 여론조사 자료만을 경험적 분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의 한국사회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하는가? (Q29d)

5)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e)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자료에서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다섯 가지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유,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와 연관된 가치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체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지도자 선출 혹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반영되는지 등 제도적 특징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그 외의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이른바 최소주의적(minimalist), 혹은 선거주의적(electoralist) 민주주의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Diamond 1999, 7-10). 아시아안 바로미터 4차 여론조사 (Asian Barometer 4<sup>th</sup> Wave Survey) 자료의 경우 개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 국가 내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는지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안 바로미터 여론조사 자료의 단점은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아시아안 바로미터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친미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개인의 친미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끼치는 영향 연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자료가 아시아안 바로미터 자료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험적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질문들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

4) 아시아안 바로미터 4차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Q164, Q170, Q171으로 총 3건, 선택지 중에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Q163, Q166, Q167으로 총 3건뿐이다.

묻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질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직접 및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반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좋음”과 “좋음”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매우 나쁨”과 “나쁨”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응답들을 대표한다.

〈표 2〉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모름	응답 없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Q29a)	22.28	53.96	17.62	2.38	3.37	0.40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Q29b)	19.50	59.01	15.54	2.18	3.17	0.59
강력한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인식(Q29c)	4.75	18.91	43.07	30.50	2.67	0.10
전문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인식(Q29d)	5.74	45.74	33.96	7.82	6.44	0.30
군부의 지배에 대한 인식(Q29e)	1.09	6.93	33.17	57.92	0.79	0.10

<표 2>에 나오듯이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76.24%가 좋다고 답변하였다.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78.51%가 좋다고 답하였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 없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73.57%가 나쁘다고 답하였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41.78%가 나쁘다고 답한 반면 51.48%가 좋다고 답하였다. 즉, 시민들은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아니어도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91.09%가 나쁘다고 답하였다.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한 경험 때문인지 한국 시민들은 군부가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 질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부

록의 <표 6>을 참고 바람).

회귀분석을 위해 첫 번째(Q29a)와 두 번째(Q29b) 질문의 응답 가운데 “매우 좋음”과 “좋음”은 각각 4와 3으로, “매우 나쁨”과 “나쁨”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Q29c, Q29d, Q29e) 질문은 “매우 나쁨”과 “나쁨”을 각각 4와 3으로, “좋음”과 “매우 좋음”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이는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함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질문은 하나씩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 및 통제변수에 따라 각 정치체제에 대해 어떤 인식이 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다섯 가지 질문들을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통해 하나의 종합적인 요약지표(summary index), 즉 ‘민주주의 지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주축요인분해법을 통해 구축한 민주주의 요약지표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최솟값은 -3.891, 최댓값은 1.918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지수가 높을수록 그 개인은 민주주의를 좋은 정치체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본 지표는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 즉 한국인의 친미 성향이며 다음 질문들을 이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 및 조작화 하였다.

- 1) 당신은 미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 (Q12a)
- 2) 당신은 미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 (Q12b)
- 3) 미국은 당신의 국가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 다소 위협이 될 것,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Q17b)
- 4) 당신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Q30)

- 5) 당신의 국가에 미국의 사상과 관습(ideas and customs)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31)
- 6)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식 사상(American idea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32)

이처럼 응답자의 친미성향을 단지 하나의 문항이 아니라 여러 문항에 대한 응답을 묶어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를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친미가 단순히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응답자의 모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응답자의 모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미국의 가치 및 문화에 대한 감정 등이 결합된 다면적(multifaceted)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Hollander 1992, 334-35; 이강로 2004, 243). 즉, 하나의 문항에 대한 응답만으로는 응답자가 친미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반미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단편적으로밖에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응답자가 여러 문항에 답한 결과를 고려하여야 그 사람의 성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에 나온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 가운데 74.75%는 미국을, 86.53%는 미국인을 우호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12.28%만이 미국이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즉,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것과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문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본 연구가 2017년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한 변수인) 2017년 취임 직후부터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한국 극우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63%만이 신뢰를 표했다. 미국의 사상과 관습이 한국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좋게 인식한 비율은 응답자의 54.65%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42%였다<sup>5)</sup>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

5) 다만 설문 문항에 “American idea”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기에

<표 7>을 참고 바람).

<표 2>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

미국에 대한 우호/비우호적 인식 (Q12a)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없음
	7.13	67.62	21.98	1.29	1.19	0.79
미국인에 대한 우호/비우호적 인식 (Q12b)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없음
	7.92	78.61	8.32	0.50	4.16	0.50
미국이 한국에 위험인지에 대한 인식(Q17b)	매우 큰 위험이 될 것	다소 위험이 될 것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을 것		모름	응답없음
	69.41	16.93	12.28		1.09	0.30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뢰수준 (Q30)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별로 신뢰 안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모름	응답없음
	2.87	13.76	48.12	29.90	4.85	0.50
미국의 사상과 관습이 한국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Q31)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모름	응답없음
	54.65	34.65			8.61	2.08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모름	응답없음
	78.42	15.94			4.26	1.39

그 정의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각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미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도록 재입력하였다. 첫 번째(Q12a)와 두 번째(Q12b) 질문의 응답 가운데 “매우 우호적”과 “다소 우호적”은 각각 4와 3으로, “다소 비우호적”과 “매우 비우호적”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세 번째(Q17b) 질문은 본래 설문지의 응답대로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은 1, “다소 위협이 될 것”은 2, 그리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은 3으로 입력하였다. 네 번째 질문(Q30)에 대한 응답은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를 각각 4와 3, “별로 신뢰 안한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2와 1로 입력하였다. 다섯 번째(Q31)와 여섯 번째(Q32) 질문은 “좋게 생각한다”를 1로 “안 좋게 생각한다”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입력하였다.

본 독립변수 역시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통해 여섯 가지 질문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요약지표로 묶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친미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약지표를 통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축요인분해법을 통해 구축한 친미성향 요약지표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최솟값은 -3.630, 최댓값은 3.655이다. 요약지표 수치가 높은 한국인일수록 그 개인은 다방면에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미성향 요약지표를 각각 최하위 25%, 중하위 25%, 중상위 25%, 최상위 25% 집단으로 분류하고 친미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지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측정 및 조작화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일 것이다.

- <세부가설 1>: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직접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2>: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간접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3>: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4>: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5>: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6>: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은 적극적인 반미성향을 지닌 시민보다 민주주의 체제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언급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외에도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주요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것이다. 통제변수로 사용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성별(Q144), 연령(Q145), 교육수준(Q159), 소득수준(Q160), 그리고 정치성향(Q164)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인 터미변수로 입력되었다.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1, 중학교 졸업자는 2, 고등학교 졸업자는 3, 대학졸업자는 4, 그 이상은 5로 입력되었다. 소득수준은 최하위 25%는 1, 중하위 25%는 2, 중상위 25%는 3, 최상위 25%는 4로 입력되었다. 정치성향은 0~6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0은 응답자가 본인이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경우, 6은 응답자가 본인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모형2>에는 각 지역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을 기저(base)로 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더미 변수가 추가할 것이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표8>을 참고 바람).

#### IV. 경험적 분석결과 및 해석

통계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TATA 16.0 버전이다. <표 4>에 언급된 <모형 1>과 <모형 2>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관한 다섯 문항 (Q29a, Q29b, Q29c, Q29d, Q29e)의 응답들을 주축요인분해법으로 종합한 민주주의 요약지수이다. 이 변수는 최솟값은 -3.891, 최댓값은 1.918이다. 이처럼 이 변수의 수치는 연속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모형 1>과 <모형 2>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모형 3>에서 <모형 7>은 민주주의 인식지수를 만드는데 사용한 각 다섯 문항이 각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각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문항의 응답은 긍정을 1로, 부정을 0으로 재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모형의 종속변수는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가 되었기 때문에 <모형 3>에서 <모형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응답 가운데 “모름”과 “응답없음”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설의 방향에 맞추고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와 친미성향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각각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강한 친미성향을 나타내도록 변수들은 재입력되었다. 따라서 친미성향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가 양수(positive number)이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친미성향 변수의 계수가 음수(negative number)이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이들이 민

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친미성향 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들도 계수들이 양수이면 변수들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이는 개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각 독립 및 통제변수의 계수는 모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ceteris paribus*)”이라고 가정하고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분석 모형에는 이 점을 보정해주는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였다.<sup>6)</sup>

〈표 4〉 한국인의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민주주의 선호도	민주주의 선호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미성향	-0.180*** (0.044)	-0.183*** (0.049)	0.061 (0.059)	0.159 (0.145)	-0.276*** (0.061)	-0.168 (0.129)	-0.495*** (0.121)
성별	0.131* (0.061)	0.139 (0.086)	-0.022 (0.094)	0.909*** (0.201)	-0.389** (0.161)	-0.137 (0.182)	0.275 (0.328)
연령	-0.008*** (0.002)	-0.008*** (0.003)	-0.007 (0.005)	-0.016* (0.009)	-0.034*** (0.003)	-0.001 (0.006)	0.002 (0.008)
교육수준	0.095* (0.047)	0.095* (0.054)	0.092 (0.140)	0.207 (0.188)	0.235** (0.102)	-0.054 (0.147)	0.277 (0.249)
소득수준	0.023* (0.012)	0.021* (0.012)	-0.027 (0.018)	0.043*** (0.008)	0.021 (0.015)	-0.028 (0.027)	0.093*** (0.034)
정치성향	-0.071*** (0.016)	-0.064** (0.029)	-0.211*** (0.057)	0.021 (0.071)	-0.145** (0.060)	-0.055 (0.045)	-0.109 (0.096)
경기도		-0.081 (0.107)					
강원도		-0.221 (0.208)					
충청도		-0.142 (0.131)					

6) 개인별 구체적인 가중치(*weight*) 수치는 퓨리서치 2017 여론조사 자료에서 제공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전라도		-0.012 (0.126)					
경상도		-0.240** (0.117)					
제주도		0.913* (0.548)					
상수	-0.103 (0.125)	-0.001 (0.290)	2.276*** (0.630)	0.627 (1.002)	2.350*** (0.207)	0.397 (0.486)	1.055 (1.198)
R-sq	0.1152	0.1279					
Pseudo R-sq			0.0234	0.0523	0.1168	0.0111	0.0823
응답자 수	592	592	631	630	635	618	643

모형 1과 2는 선형 회귀분석, 모형 3, 4, 5, 6,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비고: Two-tailed test, \* $p < 0.1$ , \*\* $p < 0.05$ , \*\*\* $p < 0.01$

<모형 1>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친미성향 지수가 1 상승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0.180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한국의 여러 지역을 더미변수로 추가한 <모형 2>에서도 한국인의 친미성향 지수가 1 상승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0.183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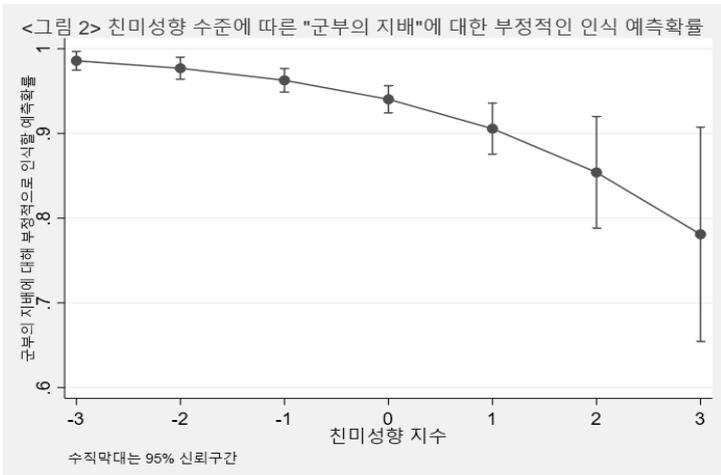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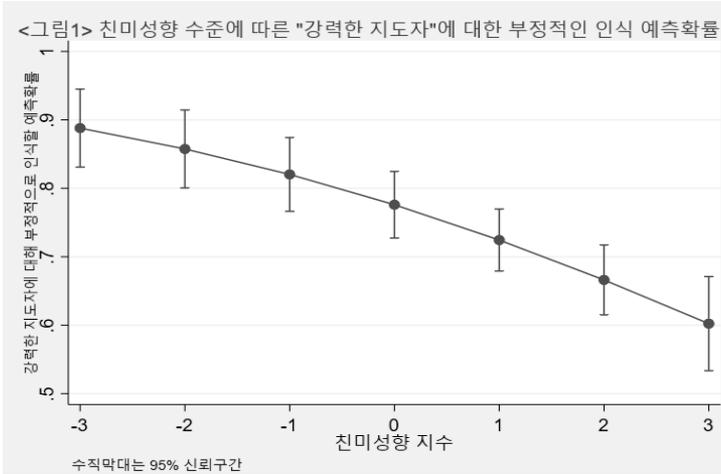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요약지표를 구축하는데 사용된 다섯 가지 문항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 3>에서 <모형 7>까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모형 5>의 결과에 의하면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인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모형 7>의 결과는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본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친미성향이 높은 시민들일수록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한편, 친미성향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설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설 1>, <세부가설 3>, 그리고 <세부가설 5>의 예상과는 반대로 친미성향과 민주주의 지지수준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나머지 <세부가설 1>, <세부가설 2>, 그리고 <세부가설 4>에 대해서는 가설을 검증할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모형들의 경우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한 <모형 1>과 <모형 2>와 달리 그 계수들을 직접 해석할 수 없으므로 (친미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키고)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ies)을 계산하여 해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형 5>의 결과에 따르면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시민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개인의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0.8880인 반면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그 확률은 0.6023으로 떨어졌다. 즉,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일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것이다. 또한, <모형 7>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개인의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0.9858인 반면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그 확률은 0.7810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일수록 군부가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7) 다만, <모형 7>의 결과는 해석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미성향이 높은 개인(친미



성향 지수 3)일수록 군부의 지배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여전히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0.7810에 이른다. 따라서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군부의 지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헤치는 군부의 지배를 옹호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였던 개인의 친미성향 외에 몇몇 통제변수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모형 1>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민주주의 선호도가 0.1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1$ ) 지역변수를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모형 4>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해줄) 승수비(odds ratio)에 의하면 그 확률은 148% 높았다( $p < 0.01$ ). 반면, <모형 5>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은 32.2%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p < 0.01$ ) 그 결과에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나머지 모형들에서는 성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연령변수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인의 연령이 1살 상승하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08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두 모형 모두  $p < 0.01$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모형 4>)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모형 5>)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1$ ,  $p < 0.01$ ). 보다 구체적으로, 승수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모형 4>에서는 연령이 1살 상승할수록 간접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연령이 10살 상승하면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할 확률은 16.0%인 것이다. <모형 5>에서는 개인의 연령이 1살 상승할수록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3.3%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의 연령이 10살 상승할 경우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33.0%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모형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개인들은 젊은 개인들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성과와 집단주의적 상징과 의례를 직접 경험한 장년층 이상의 국민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미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시각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홍성민 2015).

한편,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의 한 단계 상승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9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두 모형 모두  $p < 0.1$ ).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5>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26.5%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정치참여 동기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특히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줄 후보를 지지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문우진 2009). 즉, 이 주장의 가정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거에서 지지하고 승리하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직접 혹은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정치참여 동기, 민주주의 지지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

소득수준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 나타나듯 그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23과 0.021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두 모형 모두  $p < 0.1$ ).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4>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수준 단계가 높아질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 $p < 0.01$ )이 높아졌다. 승수비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면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4.4% 상승하였다. 또한 <모형 7>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확률

( $p < 0.01$ )이 높아졌다. 승수비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면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9.8%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비록 미약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Mischler and Rose 2001). 하지만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Sing 2012)도 있기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성향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01$ ,  $p < 0.05$ ).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 의하면 정치성향이 한 단계 보수적으로 상승할수록 개인의 민주주의 지지 수준은 0.071, <모형 2>에 의하면 0.064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모형 3>에서 보수적일수록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29.6% 낮다는, 그리고 <모형 5>에서는 보수적일수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3.5% 낮다는 세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보수적일수록 다른 어떤 민주주의 체제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진보적인 개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일수록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과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지병근 2013).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장집 1993).

주목할 점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내 친미성향을 보이는 개인들과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개인들을 반드시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모두 <모형 1>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선호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272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8> 참고). 만일, 보수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동일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두 변수 모두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정 종속변수에 같은 수준의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모형3>에서는 정치성향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개인의 친미성향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형 7>에서는 미국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들의 정치성향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 변수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한 <모형 5>의 경우 개인의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모두 동일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동일한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중북)=반체제라는 공식은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명확하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2>에 나타나듯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지역은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수준이 0.240 낮았다( $p<0.05$ ). 이러한 결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들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른바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영남지역이라는 점(윤광일 2019)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점은 아니다. 이에 비해 제주 지역은 서울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자료의 표본(1,010명)에는 애초에 제주도 응답자가 10명뿐이기 때문에 본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표 5>는 <세부가설 6>에 대한 검증을 위해 <표 3>의 <모형 2>를 제외한 통계분석의 결과이다. <모형 8>의 결과에 따르면 친미성향 지수 최하위 25%와 비교하여 중하위 25%와 최상위 25% 집단은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각각 0.141, 0.49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5$ ,  $p<0.01$ ). 특히 최하위 25% 집단과 비교하여 친미성향 최상위 25% 집단이 중하위 25% 집단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세부가설 6>

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모형 8>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모형 11>과 <모형 13>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모형에서 친미성향 최상위 25% 집단은 최하위 25%와 비교하여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 통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p < 0.01$ ,  $p < 0.05$ ).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친미성향 최상위 25%가 최하위 25%보다 27.1% 낮았으며 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35.3% 낮았다. 이처럼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지닌 한국인들이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통치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친미(그리고 반북)가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채장수 2018).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모형 9>),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모형 10>)와 전문가들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모형 12>)은 개인의 적극적 친미(혹은 적극적 반미) 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5> 친미성향 수준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변수	민주주의 지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미성향						
중하위25%	-0.141** (0.055)	0.153 (0.186)	0.346 (0.274)	-0.078 (0.196)	-0.176 (0.152)	-0.017 (0.278)
중상위25%	-0.117 (0.129)	0.317 (0.245)	0.354 (0.221)	-0.336 (0.320)	-0.215 (0.239)	-0.518 (0.362)
최상위25%	-0.499*** (0.117)	0.231 (0.149)	0.464 (0.356)	-0.803*** (0.116)	-0.432 (0.336)	-1.094** (0.426)
성별	0.119*	-0.034	0.902***	-0.401**	-0.145	0.215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변수	민주주의 지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0.058)	(0.098)	(0.198)	(0.162)	(0.191)	(0.316)
연령	-0.008***	-0.008	-0.017*	-0.033***	-0.0002	0.003
	(0.002)	(0.005)	(0.009)	(0.003)	(0.005)	(0.009)
교육수준	0.103*	0.101	0.206	0.239**	-0.051	0.272
	(0.043)	(0.131)	(0.193)	(0.093)	(0.150)	(0.249)
소득수준	0.022	-0.028	0.043***	0.018	-0.028	0.091**
	(0.012)	(0.018)	(0.008)	(0.014)	(0.027)	(0.036)
정치성향	-0.075***	-0.214***	0.023	-0.147**	-0.061	-0.132
	(0.012)	(0.059)	(0.073)	(0.061)	(0.042)	(0.097)
상수	0.051	2.144***	0.396	2.590***	0.577	1.485
	(0.109)	(0.632)	(1.071)	(0.258)	(0.487)	(1.008)
R-sq	0.1162					
Pseudo R-sq		0.0248	0.0541	0.1206	0.0108	0.0801
응답자 수	592	631	630	635	618	643

모형 8은 선형 회귀분석, 모형 9, 10, 11, 12, 1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친미성향 변수의 기저는 “최하위25%”집단이다.  
 비교: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친미(반미)적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 시민들 가운데 친미성향이 높은 개인들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아질수록 이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낮아지는 (긍정적인 인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가진 개인들 역시 친미성향이 이들보다 약한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강력한 지도자 및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친미와 반미성향을 보이는 세력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결부시키고 있다. 광장으로 나온 (친미 혹은 반미) 세력 모두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 확률이 다른 이들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연 친미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주장처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반민주주의 세력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개인들도 각종 예측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이들보다 강력한 지도자 혹은 군부의 지배에 대해 덜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논문을 통해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종북)=반체제 등과 같이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분류는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구조를 명확하게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들

이 상황에 따라 보수적인 정치성향과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동시에 지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내 갈등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퓨리서치센터 세계여론조사 데이터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인데 이 데이터에서는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 각각 다섯 개씩만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친미(혹은 반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그리고 제도적 측면 외에도 민주주의라는 개념·가치·정신·문화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다양한 방면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조작화 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적실성을 갖추고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5권, 7-59.
- 김용철·최종건. 2004. “한국인의 반미행동 의도에 대한 인과 분석: 미국의 이미지와 한국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권 4호, 123-143.
- 김용철. 2016.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제된 결합 있는 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9집 2호, 31-62.
- 남궁곤. 2000.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12호, 159-199.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권 4호, 327-349.
- 민중언론: 참세상. 2002. “더 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12월12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24955> (검색일:2022/01/31).
- 배재성. 2018. ““가만히 있으라” 태영호, 협박성 이메일에 강연 취소.” (11월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05783#home> (검색일: 2022/02/04).
- 브루스 커밍스. 2003. “특별기고-한국 반미주의의 구조적 기반.” 『역사비평』 62호, 45-84.
- 엄한진. 2004. “우경화와 종교의 정치화 - 2003년 ‘친미반북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2권, 80-117.
- 연합뉴스. 2017. “박근혜 퇴진→MB구속反트럼프…1년만에 바뀐 ‘촛불 구조.’” (10월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8051100004> (검색일: 2020/03/31).
- 오창현. 2015. “한국인의 대미인식 변화에 관한 분석 -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집 4호, 189-218.
- 월간조선. 2004.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총 1119명).” (10월호).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410100090> (검색일: 2022/02/05).
- 윤광일. 2019.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국제정치논

- 총』 35권 2호, 37-73.
- 이강로. 2004. “한국내 반미주의(反美主義)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44권 4호, 239-261.
- 이내영·정한울. 2005.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과 한국인의 대미인식: 한미동맹 위기론과 대미인식 다원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권 3호, 81-104.
- \_\_\_\_\_.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251-287.
- 이수인. 2004. “개신교 보수분파의 정치적 행위 - 사회학적 고찰.” 『경제와 사회』 64권, 265-301.
- 이지문. 2017.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보합으로서 추첨시민의회 모색.” 『NGO 연구』 12권 1호. 1-40.
- 이현송. 2015.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 『국제·지역연구』 24권 2호, 91-126.
- 장우영. 2016. “온라인 미디어와 이념갈등의 위기.” 『한국위기관리논집』 12권 1호, 125-138.
- 전상숙. 2011.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반미’를 통해 본 이념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권 1호, 147-171.
- 전상인. 2003. “제7장 반미(反美)의 역사사회학.” 『비교사회』 통권 5호, 191-215.
- 조기숙.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 3호, 125-148.
- 조성환. 2016. “제8장 민주화 이후 한국 진보·보수의 이념적·정치적 경쟁의 특성: 진보 헤게모니 구축, 진보테제의 형성·전개의 비판적 분석” 『통일전략』 16권 1호, 283-316.
- 중앙일보. 2004.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 (9월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7784#home> (검색일: 2022/02/05).
- 지병근. 2013.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19권 1호, 31-56.

- 채장수. 2018.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정보연구』 21권 2호, 37-62.
- 최용락. 2019. ““박근혜 석방 그 황홀한 꿈” 꾸는 ‘성조기 부대’.” 『프레스시안』(6월29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6925?no=246925> (검색일: 2020/04/01).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파파존TV, 2019. “우리공화당 태극기집회.” (8월3일). <https://www.youtube.com/watch?v=RN8o7utn-EI&t=10935s> (검색일: 2020/02/04).
- 홍성민. 2015. “감정구조와 대중정치학: 박정희 향수에 대한 문화이론적 접근.” 『정치사상연구』 21권 1호, 9-34.
- Baxter, Kylie, and Shahram Akbarzadeh. 2008.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The Roots of Anti-Americ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aniels, Timothy P. 2007. “Liberals, Moderates and Jihadists: Protesting Danish Cartoons in Indonesia.” *Contemporary Islam* 1(3): 231-46.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nyedi, Zsolt. 2016. “Populist Polarization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Problems of Post-Communism* 63(4): 210-20.
- Gustafson, Kristian. 2007. *Hostile Intent: U.S. Covert Operations in Chile, 1964-1974*. Washington, D.C.:Potomac Books, Inc.
- Hollander, Paul. 1992. *Anti-Americanism: Critiques at Home and Abroad, 1965-19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ng, Heon Joo. 2010.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Deconstructing Hegemonic Ideas and Threat Perception.” *Asian Survey* 50(5): 946-64.
- Lee, Dong Sun. 2007. “Democratization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3): 469-499.
- Mietzner, Marcus. 2018. “Fighting Illiberalism with Illiberalism: Islamist Populism and Democratic Deconsolidation in Indonesia.” *Pacific Affairs* 91(2): 261-82.

- Mischler, William, and Richard Rose. 2001. "Political Support for Incomplete Democracies: Realist vs. Idealist Theories and Measur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03-320.
- Oh, Chang Hun, and Celeste Arrington. 2007.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7(2): 327-350.
- Pew Research Center. 2013. "Spring 2013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3-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4. "Spring 2014 Global Attitud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2014-spring-global-attitudes/>(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5. "Spring 2015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5-survey-data/> (검색일: 2019/03/04).
- Pew Research Center. 2017. "Spring 2017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7-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8. "Spring 2018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8-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9. "Spring 2019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9-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20. "Summer 2020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ummer-2020-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Shin, Gi-Wook. 1996.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36(8): 787-803.
- Shorrock, Tim. 1986.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the Rise of Anti-Americanism." *Third World Quarterly* 8(4): 1195-1218.
- Sing, Ming. 2012. "Explaining Support for Democracy in East Asia." *East Asia* 29(3): 215-234.

투고일: 2022.02.09.	심사일: 2022.03.22.	게재확정일: 2022.03.22.
------------------	------------------	--------------------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Democracy and Pro/Anti-American Sentiments

**Park, Jung Hoon** |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Chung, Alec** | Jeju Peace Institute

Within South Korea, there are pro-American and anti-American groups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n present-day Sou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se two groups i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conflicts that shapes the political landscape. However, these seemingly different groups also have one thing in common. Both groups argue that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s making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ttempt to find out, using survey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whether individuals with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S have a higher level of support for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 that support for democracy declined as individuals showed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Specifically, those who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makes decisions or the one which military rules negatively. The findings obtained through analysis imply that the conventional framework that conservatives are pro-American and progressives are anti-American turned out to be too simplistic, having limits in clearly analyzing the 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that exist in South Korea today.

---

**Key Words** | South Koreans, Pro-American Sentiments, Democracy, Public Opinion, Correlation

## 부록

〈표6〉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퓨리서치센터 2017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

	직접민주주의 (Q29a)	간접민주주의 (Q29b)	강력한 지도자 (Q29c)	전문가 (Q29d)	군부의 지배 (Q29e)
직접민주주의(Q29a)	1.0				
간접민주주의(Q29b)	0.1125	1.0			
강력한지도자 (Q29c)	0.0542	0.0390	1.0		
전문가(Q29d)	-0.0304	0.0144	0.2422	1.0	
군부의 지배(Q29e)	-0.0269	0.1266	0.3804	0.1597	1.0

〈표7〉 ‘친미성향 지수’를 구성하는 퓨리서치센터 2017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

	미국에 대한 인식 (Q12a)	미국인에 대한 인식 (Q12b)	미국이 한국에 위협인지에 대한 인식(Q17b)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 (Q30)	미국의 사상과 관습에 대한 인식(Q31)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미국에 대한 인식 (Q12a)	1.0					
미국인에 대한 인식 (Q12b)	0.4202	1.0				
미국이 한국에 위협인지에 대한 인식(Q17b)	0.1800	0.1244	1.0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 (Q30)	0.2540	0.1347	0.1703	1.0		
미국의 사상과 관습에 대한 인식(Q31)	0.1974	0.2098	0.0726	0.1029	1.0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0.1429	0.1327	0.0059	-0.0097	0.3898	1.0

〈표8〉 통계분석에 사용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친미성향 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친미성향 지수	1.0					
성별	0.2044	1.0				
연령	0.1481	0.0829	1.0			
교육수준	-0.1154	0.0284	-0.3565	1.0		
소득수준	-0.0996	0.0228	-0.3202	0.4504	1.0	
정치성향	0.2725	0.0488	0.2794	-0.0759	-0.1294	1.0